



뿌리가 깊으면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뽑히지 않습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2(남): 큰스님께서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질문의 답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선원에 나온 지는 한 15년 됩니다. 처음에 나올 때 큰스님의 책을 받을 새워서 읽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큰스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큰스님의 법문을 많이 듣고 또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관하리는 말씀과 또 놓고 가라는 말씀, 주인공에게 맡기라는 말씀,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생활하면서 언제나 그 길 실천에 옮기려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머니도 될 수 있고 또 아버지도 될 수 있고 또 동생 형도 될 수 있고, 산전초목 물도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참선이라는 것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생활하면서 느끼고 참나를 찾기 위해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사람들의 수행하는 과정이 각기 다른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은 깊은 산에 가서 며칠이고 참선하는 분도 계시고, 또 저 같은 사람은 그냥 그때 그때 느끼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큰스님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참선하는 자기에게 있는 것이며, 남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주인공이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참선을 해야 되는지, 또는 깊은 산중에 가서 망상을 떨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보내야만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지, 아니면 그냥 저희들처럼 이렇게 생활하면서 자꾸 갈구하고 참나와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실천을 해 가도 되는지요. 어느 쪽이 더 좋은지 큰스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큰스님: 사람들이 참선을 한다 하면 그저 몸을 조아리고 앉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몸을 수행시키는 게 아니라 마음을 수행시키는 공부입니다. 판 데서 하는 게 틀렸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도 법사 스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국에 가서 보니까 스님네들이 좌선, 참선하는 자세를 가르치고 계시다고 그러합니다. 그런데 좌선을 앉아서 하는 걸 가르치고 가는 것만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뜻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앉았다가 일어나면 선(禪)은 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이란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항상 앉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전에도 마조(馬祖)가 앉아 있

니까 회양(懷讓)은 기왓장을 깔았다 하지 않습니까? "넌 뭘 하려고 그렇게 앉았느냐?"고 묻자 "나는 부처를 이루려고 이렇게 앉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일어나지도 먹지도 누지도 말아야지 선이 끊어지지 않지, 그렇게 앉았다 일어나면 선이 끊어지는데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니 거기에서 그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앉았다 일어나면 선이 끊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앉았다 하면 아주 일어나지 말아야죠. 그게 목적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해 보시고 '아, 이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 수행이로구나.' 해서 그 후로는 마음의 수행을 중시하셨고 힌두교도에게 수행하는 방법도 알려 주셨죠. 우리가 지금 망상이 일어난다 이라는 것도, 아

까 얘기했지만 그건 망상이 아니다 이겁니다. 가르치기 위한 방법으로 망상이라고 그랬지 우리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이 생각 저 생각, 나쁜 생각 좋은 생각 이런 게 안 난다면 어떻게 부처를 이롭니까. 그러니 부처 가운데서 중생이 나왔고 중생 가운데서 부처를 이루었다 했습니다. 어찌 그것이 돌이라고 봅니까.

그런 반면에 참선이라는 이 자체는 바로, 아까도 얘기했죠. 첫째, 주인공만이 주인공이 있다는 증명을 해 줄 수 있는 거다. 둘째, 증명을 해 줌으로써 돌이 아니게 돌이감을 알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돌이고 내는 그 강한 도리를 알게 해 줄 것이다 이겁니다. 바로 그렇게 돌이 아니게 돌아가는 그것을 아는 까닭에, 세 번째는 바로, 돌이 아니게 이 모든 일체 생명과 더불어 같이 나

똥다고 하는 도리가 바로 거기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망상이다, 망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다 보라 하는 겁니다. 선으로 돌아간다면 약이 불고, 악으로 돌아간다면 선이 불으니 어찌 벗어날 길을 찾으랴. 악도 놓고 선도 보라,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이 자체에서 그대로 묘하게, 인간을 참담으로 이루게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용솨음치고 나옵니다. 그 마음을 좀더 넓혀서 생각을 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 마음이 얼마나 묘합니까. 그 마음은 여러분의 보배인 것입니다. 즐거운 것도 가져올 수 있고 슬픔도 미움도, 또 선의적인 마음도 악한 마음도 듣고 보는 대로 생기기 그 얼마나 묘합니까. 그것을 망상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아하,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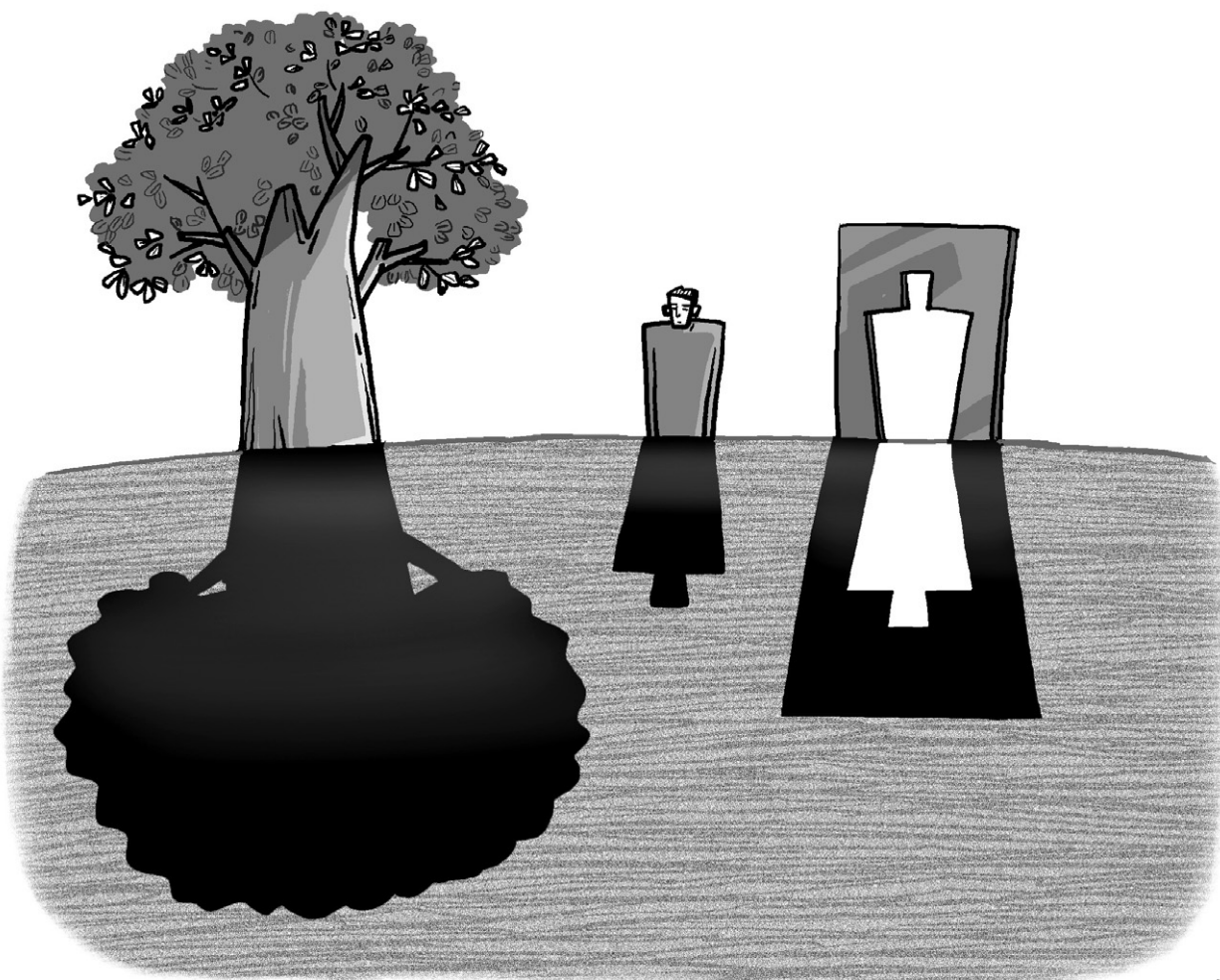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런 것이 전부 죽 속에서 끓는 죽방울 나오듯이 그 많은 생명의 의식 속에서 나오는 건데 내가 왜 거기 말리랴' 라고 해야죠. 죽방울이 '그냥 그렇게 해!' 해도, '그래, 그냥 그렇게 해!' 그렇게 나와도, '네가 했으니까 네가 모든 것을 그 한마을 속에서 해결해라.' 하면 '아, 내가 네 속을 썩이려고 그냥 막 이랬는데 너는 유유히게 말아야, 내가 그러는지 벌써 알고 있으니 재미가 없어.' 그래서 그만, 그만두는 겁니다. 그러니 속이 터지던 것도 그만 가라앉는 겁니다. 자기 탓으로 돌리니 눈물만이, 아무 상관 없이 눈물만 흐르는 거지요. 어떤 분이 그렇게 했다면, 정말이지 앞으로 머지않아서 정말 우죽 쏘아지듯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보세요, 우리 마음의 뿌리가 짙뿌리라면 하여튼 굵고 깊어 박혀야 그 가지마다 굵게 뻗어 나가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여름이 되나 사철 그 짙은 어감없이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인간의 꽃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궁무진하며 뿌리가 깊으면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그것은 뽑히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마음의 뿌리를 깊이깊이 뻗어 나감으로써 위로는 부모의 은혜도 갚고... 일체 조상이 돌이 아닙니다. 본래의 부모죠. 거미도 자식을 뒀고 부모를 뒀습니다. 하다못해 개구리도 개구리 부모를 뒀고 자식을 뒀습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찌 부모가 다르고 자식이 다르겠습니까. 그 벌레에서부터 올라온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렵게 인간으로 화(化)했기에 각자 자기가 광대무변하고, 또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등 동물이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몸 안에서 마음이 벗어나야 할 텐데요, 첫째는 몸 안에서 벗어나야겠다. 이 몸 안에서 나오는 그 모두를 다스릴 수 있어야겠다는 것이지요. 내 몸이 있으니까 그 중생들이 있는 겁니다. 내 몸이 없다면 그 중생도 없고 바로 상대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몸이 생겼으니까, 어떻게 됐든지 내 몸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내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 내 몸의 중생들이 어떻게 놀든지 모든 것을 내버려 둘 수 있는, 들으면서도 행하면서도 자기 마음이 자기 그 많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지배인이 된단 얘기입니다. 그 모든 의식 속에서 지배인이 되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30면으로 계속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헴프) 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사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헴프오일비누
1개 10,000원

■건포, 스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동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위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삼베사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원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 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중로구 수송동 수송빌딩 2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자신부터 알아야 부처님의 마음을 통달한다

29면에서 계속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기서 무슨 말을 몰랐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라고 갑니다. 그게 그 지배인이 돼야만 그 모두를 이끌고 나가는 선두자가 되죠. 그럼으로써 그것이 직접 참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참선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선을 하게 되면 그때는 완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참선을 한다 하면서 진짜 참선은 못 하고 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쉬운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모든 의식들이 해어질 수가 없어 있는데, 주인공을 용광로라고 생각하고 나오는 대로 모든 것을 그냥 거기에 넣어라. 이런 자동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넣는 그 작업만 한다면, 놀기만 하면 거기서 새 쇠로 재성이 돼서 나간다.'는 거죠. 그럼 그게 거죽으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믿고 다니면서 이 공부를 해 보시지만, 여기 이 도량은 말하자면 백 리 안팎으로는, 아니, 그냥 아주 줄여서 말하죠. 3킬로미터라고 해도 되고 또 100미터라고 해도 됩니다. 조그맣게 생각해도 좋고 크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백 리 안팎으로는 광역과 전력과 자력, 통신력이 충분한 여러분한테 작용이 됩니다. 교리로 배운 것은 말만 하기 때문에 말로 땅에 떨어지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그것을 깨닫는다면 이심전심으로써 일체 만물만생과 더불어 같이 접촉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여기선 그만큼 되기도 남음이 있죠. 여러분이 없다 생각하면 없는 것이고 있다 생각하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묘한 거죠. 그래서 거지가 밥을 얻으러 올 때 반드시 강동을 가지고 와야만 답이 줄 수 있다 이거지, 마음을 안 가져오는 데 어떻게 답이 됩니까? 이심전심인데요. 몸뚱이를 보고 안 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 자체입니다. 집에서 여기를 바라보고 생각만 해도 벌써 이심전심으로 한 찰나에 들었다가 한 찰나에 좋은 뜻을 전하고 한 찰나에 나신다 이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자기가 그런 경험을 못 했다 할 지라도 여러 사람들 말을 들어 보고 그러면 아 싹 텐데요? 3미터나 100미터나 백 리나 이런 것을 떠나서, 미국에서 여기를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이심전심으로 딱 한 찰나에 묘한 법을 전달하고 가더라고요. 내 모습으로 보였다고 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의 자부처가 바로 내 모습으로 보이 거죠. 하니까 때문에 돌로, 너는 너고 나는 나이면 서로 하나로 두 다리 쪽 내뻗어서 보인 것처럼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나 두 발은 두 발인데 한 발이죠. 한 발은 한 발인데 둘이 아니죠. 네 발

내 발 둘이 아니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앉아서 참선? 산골에 들어가서 참선? 아니, 산골에 들어가면 거기 부처가 있고 산골에 안 들어가면 부처가 없습니까? 여러분입니다. 즉, 여러분부터 알아야 부처님의 마음을 통달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자신을 모르는데 어찌 남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자기 마음부터 알아야 깨달은 부처님의 마음도 알고 이 머저리 같은 내 마음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혼자 중얼거릴 때도 많고, 그런 건 아무 상관없이 말합니다. 야, 테레비를 보고도 그렇고, 세상을 보고도 그렇고, 사람들 그 울부짖는 것을 보고도 그렇고, "스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고 그냥 울 때도 그렇고 이거는 뭐, 이렇게 듣는 것만 해도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내가 미국에서 머물렀던 40일 동안에 몇 사람의 소리를 들었을까요? 그걸 수효를 따진다

있어.' 하고선 거기다 놓아야 편안하게 앉아서 관할 수 있는 것이지, 이진 나오는 대로 일일이 생각하고, 몸뚱이 여기 앉아 있는데 마음은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온통 그러다 보면 그게 무슨 좌선이며 참선입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안정됐을 때, 가계에서 장사를 해도 그건 꿈쩍 안 합니다. 여전히 웃고 부드럽게, 장사하더라도 그 심봉은 꿈쩍 안 합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전에 제가 그렇게 산골로 다녀도, 목신도 있고... 뭐 없는 게 있습니까, 어디? 다 있지. 그 생명의 의식들이 다 친구가 되고 벗이 되니까 무서운 게 어딴습니까? 아, 보세요. 모두가 친구인데 어떻게 무서울 게 있습니까? 나 나가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조금 머저리 같아도 좋다 하는 겁니다. 좀 모르는 듯한 것이 그럴 땐 조금 낫더라 하는 거죠. 내가 약했

세요. 그러면 그냥 하계끔요. 괴상한 거라도 좋으니까요. 네, 하하하.

질문자3(남): 저, 다름이 아니고 마음이 참 묘한데, 저는 마음공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없이 깊고 한없이 연구해야 되는데 저희 중생들이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남과 남이 서로 만나서 살다 보니까, 사실 미운 정 고운 정이 다 드는데 미운 사람에게는 '아, 저놈이 사람이 좀 안됐으면 좋겠는데...' 하고 기도도 좀 하고 마음을 많이 내다 보면 그 사람이 안 돼야 되는데 오히려 좀 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님, 이런 경우에 이게 보살행인지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오.

큰스님: 허허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가 참, 처음에 뭐라고 그러셨더라? 그 말끝에 내가 애길 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으니, 전세 든 내 집을 당신 명의로 해서 들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4000만 원에 전세를 들었는데 아, 그거라도 받았으니 얼마입니까? 그 뒤에 또 쌀도 들여보내 주고 이리니 돈은 없어졌다 하더라도 더욱더 친절해지고 더욱더 서로를 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걸 되찾고도, 거기 같이 일을 하게 됐더라는 얘기도.

그러니 우리가 남을 원망하기보다도 나부터 돌아다볼 줄 알아야 되죠. 지금 그 말도 그 뜻이예요. 그저 남을 원망할 생각은 조금도 마세요. 나는 나를 버리고... 갖다든가 온다든가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나하요? 세상에는 그거보다도 더한 것도 다 버리고 가고, 내 몸도 아젠 벗어야 할 그런 처지에 구태여 무슨 뭐, 누가 어쩌나... 아니, 찢고 뚫고 하던 것도 다 버리고 떠나는 데 그까짓 거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러니 이렇게 해서 안 되느니, 저렇게 해서 안 되느니...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진짜 사랑하려면 '그저 '네 주인공과 내 주인공이 둘이 아니니까.' 하고 스위치를 탁 올리면 거기에도 불이 들어오거든요. 한 방이니까, 한 식구들은 한 방이거든요. 한 방의 스위치가 다 한 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는 어떻게, 요놈 조부 하고 그럭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저 위로도 아래로도 전부 한마음이 돼서, 보이지 않는 데서나 보이는 데서나, 위로 조상들이 나를 돕고 아래로 자식들이 따라서 또 도와 간다면 뿌리가 깊이 박혀서 그 자식들이 어디 가도 잘 살죠. 자기 2세 거든, 딴 사람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모습을 바꾼 거지. 그런 것뿐이니까, 자기가 잘 살도록 자기가 해야죠. 그러니 원망하지 마세요. 지금 질문한 분, 원망하지 않는다면 월 1년 안으로 좋은 기회가 생길 테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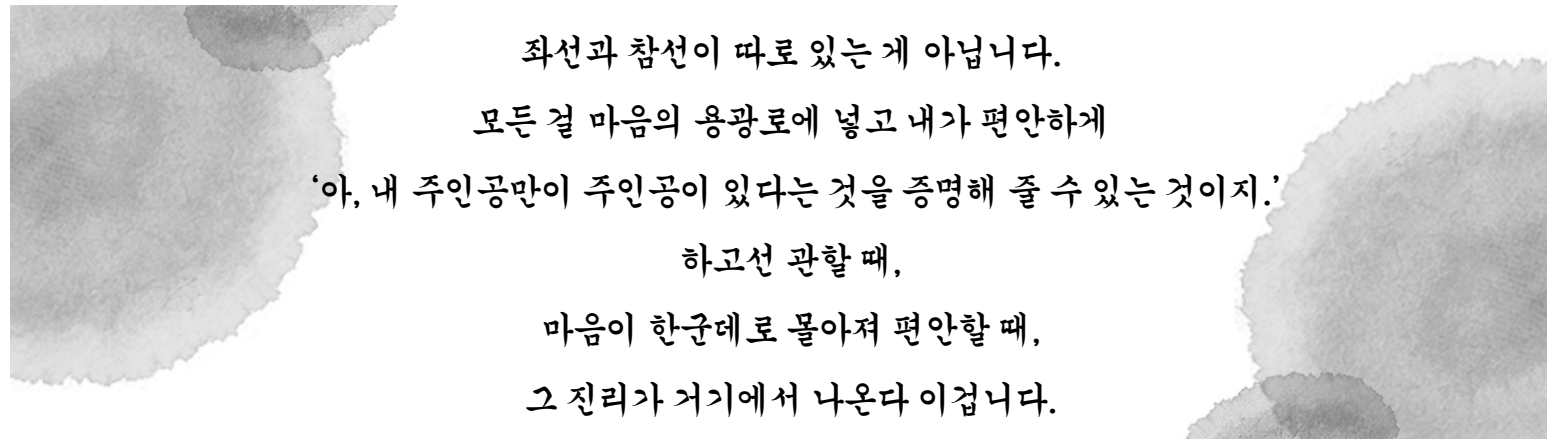
신도회장: 어느덧 시간이 또 많이 지났습니다.
큰스님: 아, 좀 지나면 어떻습니까, 뭐, 하하. 아이, 단군할아버지께선...

신도회장: 질문 준비하신 분들은 요다음 셋째 법회 때 또 질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큰스님: 아, 총무 스님 있을 때에는 총무 스님이 그러고, 또 우리 회장님 있을 땐 회장님이 그러고, 아이, 우리 저 수좌들 데리고 가면요, 또 수좌들이 탁탁 막아요. 허허하... 그런 걸 보면 참...

신도회장: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허허하... 감사합니다.

* 위 법문은 1991년 4월 7일 법행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좌선과 참선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마음의 용광로에 넣고 내가 편안하게

'아, 내 주인공만이 주인공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이지.'

하고선 관할 때,

마음이 한군데로 몰아져 편안할 때,

그 진리가 거기에서 나온다 이겁니다.

면 한 사람도 건지지 못합니다. 그걸 남으로 안다면 한 사람에게도 이익을 못 준단 말입니다. 그저 높이 보지도 말고 낮추어 보지도 말고 자기같이만, 못난 자기같이만 보면 됩니다. 그래야 사랑을 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이익을 줄 수 있고, 그래야만이 공덕이 될 수 있다 이 소립니다.

여러분 가셔서 안방에 앉아 보세요. 자기가 거기 있기 때문에 부처가 거기 있지 아, 자기가 없는데 무슨 부처가 있습니까. 자기가 없는데 부처가 어딴지, 또는 내 몸뚱이를 끌고 저 산골로 들어가 본다 하더라도... 나도 한바탕 웃었습니다마는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했어도 끌고 다닌 자체가 없더라 이겁니다. 그러나 좌선은 마음 편안한 걸 말하고 참선이라는 거는 마음 편안한 데서 참진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좌선과 참선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용광로에 넣고 내가 편안하게 '아, 내 주인공만이 주인공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이지.' 하고선 관할 때, 마음이 한군데로 몰아져 편안할 때, 그 진리가 거기에서 나온다 이겁니다.

또 여러분이 집에 어떤 급한 일이 있어도 '아하, 내 주인공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지. 내가 주인공 심부름꾼인데 그저 당신만이 해 줄 수

으면 그렇게 못 하죠. 지금처럼 이렇게 밝고 밝은 세상에 말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지금 세계는 전파를 통해서 두루 하는데, 앞으로 마음공부가 아니라면 어떻게 할 수 있겠나 이겁니다. 물질은 무상(無常)하다 이 소립니다. 그 질문하신 게 그만 어떻게 됐습니까? 하하하. 다 됐습니까?

질문자2(남): 예, 저 실은 질문을 용지에다 써 가지고 몇 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큰스님께서 바로 그 법문을 하시는 걸 보고 제가 '이게 한마음이구나.' 이렇게...

큰스님: 허허하... 그래서요, 지금 질문하신 분도 그 도리를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보시하기 위해서요. 이 마음이 가득한 겁니다. 그 도리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이렇게 배우자 하는 뜻에서, 이 길을 걸어가는 법우님들 형제님들과 놓고 닳음이 없이 같이 하자는 뜻이죠. 내가 그것도 알니다. 그래서 그냥 덮어놓고 이렇게 하죠. 하하하... 하하하 셋째 일요일도 질문을 하는 데에 역점을 두십시오. 만날 나만 혼자 말을 하계끔 만들어 주시니 어떡합니까. 질문을 하시도록 하

어버렸으니 그만두죠.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누가 하도 못살게 하고 회사를 망하게 해 놓고 돈도 한푼 안 주고 그래서 아예 그냥 거리로 내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너도 거리로 나왔어 봐라. 거리로 나왔어 봐라." 그리고 한바탕 주워섬기면서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글세를 사는데, 아, 글썽 그 사글세도 내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허허하... 그게 가지고는 "야, 이거 나쁜 사람은 오히려 살고 나는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도대체 뭐지 모르겠다."고 나한테 그러기에, 내가 그랬습니다.

"야! 이심전심이야. 당신의 마음이 그러니까 당신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야. 당신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니 남을 원망하지 마. 말하자면 사인을 받지 않고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 그건 당신이 잘못된 거지,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지 않느냐. 똑똑히 하라는 거지, 부처님 법이 그렇게 잘못하라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랬죠. 그러구선 "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잘못해서 참, 그 뜻을 알아서 날 좀 도와주게 하는 것도 주인공밖에 없겠지.' 하고 거길 믿어라." 그랬는데, 그 해 1년이 지나갔습니다. 1년이 지난 후 하루는 그 사람이 찾아와서 "이제는 조금 나아졌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5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분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2번 구분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 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홍민(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동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프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슬라브,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 서울 · 경기 : 02)456-8831
- 강원도 : 019-396-1110
- 충청도 : 010-8674-2357
- 경상도 : 010-9190-3350
- 전라도 : 011-248-6298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지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절감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사찰 전기공사 상담대환영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해봉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불기 닦는 일 힘드시죠!!
아주 쉽고 빠르게 닦이고 광택이 깨끗하게

친환경 다목적 금속광택제 이지 골드



숯대, 향로, 위패, 유기, 제기, 놋쇠, 은, 동, 신주 등 모든 금속류

문의 070-8262-9291. 010-5462-3620
농협 312-0029-1189-81 예금주 : 고태웅
영일상사